

# 쌍용 품은 아이티센 극강 시너지, 톱티어

지분 40% 완납, 인수 마무리  
IT 사업 등 신규시장 진출  
AI 계열사들과 시너지 기대



아이티센은 국방, 스포츠, 네트워크 통합 IT서비스 기업 쌍용정보통신 인수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아이티센은 쌍용정보통신의 지분 40%에 대한 대금 262억원을 완납하고 인수를 마무리했다. 아이티센은 지난 2월 쌍용정보통신 인수를 공식 발표한 뒤 인수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 지분 인수로 쌍용정보통신은 아이티센 계열사로 편입됐다.

쌍용정보통신은 평창 동계올림픽, 세계 군인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검증된 글로벌 스포츠 IT솔루션과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사업에서 독보적인 전문성과 기술력, 수행능력을 인정받았다. 2019년에 통합운영한 EBS패밀리사이트 사업도 연속으로 수주에 성공했다. 코로나19로 언택트와 원격 교육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뉴딜'이 언급되며 쌍용정보통신도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아이티센그룹 강진모 회장은 "이번 인수로 솔루션부터 통합서비스까지 이르는 IT서비스 밸류체인을 수직계열화 및 공공부터 금융, 국방, 제조, 서비스, 유통시장까지 아우르는 IT서비스시장 수평계열화를 완성하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는 신규시장 진출 및 각종 IT사업이 가능하게 됐으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바이오인증 등 각종 신기술을 보유한 계열사들과의 협업 및 시너지를 통해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정보통신은 최근 국제품질인증모델인 CMMI 레벨4 인증을 재획득했다. CMMI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CMMI 레벨 4 이상의 고성숙도에 속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심사 신청 기업 중 10% 정도만이 인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CMMI는 카네기멜론대 SW공학연구소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 조직 성숙도 평가 프로그램이다.

/구세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코로나 장기화... 대목 앞두고 항공사 '한숨'

여객수요 회복 시기상조 분위기  
국적항공사 국제선 여객 98%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한산한 여행사 카운터.

/김수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면서, 국적 항공사들은 '대목'을 앞두고도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에 항공업계는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분기 국적 항공사의 영업손실은 도합 약 5600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국가 간 하늘길 규제가 본격화된 2분기 실적은 이보다 적자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항공업계에서 통상 '대목'으로 여겨지는 3분기마저 전망이 밝지 않다는 데 있다. 여름 휴가 시즌이 겹치는 3분기는 국제선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제선 여객 수는 ▲7월 534만명 ▲8월 535만명 ▲9월 442만명으로, 국제선 전체 여객 수(9038만5640명)의 약 17%에 달한다. 최근 들어 중국 등 일부 국제선의 운항이 재개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요를 회복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업계 중론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적 항공사를 이용한 탑승객

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줄었다. 지난달 기준 국내선과 국제선을 이용한 여객은 각각 376만8338명, 9만3489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 ▲국내선 570만6566명 ▲국제선 500만8541명 등 전체 1071만 5107명 대비 약 64%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국제선의 경우, 여객 수가 98%가량 줄었으며 운항 편수도 4471편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가량만 운항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이달 들어 국적 항공사들이 일부 국제선을 운항 재개했지만, 이마저도 최근 국내에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될 조짐을 보여 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내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 6~7일 이틀 연속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체계의 기준선인 50명을 넘어섰다. 다만 8일 기준 38명을 기록하며 줄었으나, 지난 5일 롯데월드 방문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서 또 다른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주목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3분기에)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조치를 풀지 않으면 당연히 수요는 약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선은 이미 늘릴 만큼 늘린 상황이다. 6, 7월 국제선 재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아마 초기에는 운항한다고 해도 '로드팩터'(항공기의 적재 가능 여객수 대비 실제 수송 여객 수의 비율)가 당연히 많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국제선 운항을 하지 않으면, 기장들의 자격정지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항을 재개해야 하는 이유도 있다"라며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관광국 중자가격리를 안 시키면서 입국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완화한 곳도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넥슨-SKT "카트 아이템·굿즈 쏜다"

SKT 부스트파크 방문 증정 이벤트

넥슨은 인기 모바일 레이싱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에서 SK텔레콤과 손잡고 온·오프라인 제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8월 8일까지 전국 160개 SKT 부스트 파크 T월드 매장에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게임 아이템 쿠폰을 제공한다. 해당 쿠폰은 총 8만 세트 한정이다.

매장 방문객 누구나 현장 QR코드를 통해 아이템 3종 'SKT 5GX 번호판', '자이언트 캣 풍선', '점프 스킵드'가 담긴 쿠폰을 얻을 수 있다. 카트라이더서

포터 엠블럼', '1000K코인' 등 아이템도 추천으로 추가 획득이 가능하다. 같은 기간 광화문, 가로수길을 포함해 전국 37곳에 위치한 SKT 부스트 파크 T프리미엄 매장에서는 휴대폰에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가 설치된 이용자에게 캐리터 스티커팩과 그림책을 선물한다.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레이싱에 참여하면 SKT 데이터 쿠폰을 선물하는 등 게임 플레이와 연동되는 온라인 이벤트도 6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SKT 부스트 파크 매장 제휴 이벤트에 대한 내용은 공식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코트라 '공동물류 네트워크' 인기... 추가 모집

KOTRA(코트라)가 전 세계 127개 무역관에 구축한 '공동물류 네트워크 서비스'가 전자상거래 수출업계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코트라는 지난해 9월 해외공동물류센터를 84개국 127개 무역관 소재지로 확대하고 입출고·보관·포장·교환·반품까지 지원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했다. 올해 모집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이미 작년 지원기업 수를 넘어섰다. 해외 공동물류 인프라를 이용하려는 기업이 크게 늘면서 코트라는 긴급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공동물류센터는 코로나19로 늘어난 비대면 전자상거래 수출을 뒷

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물류창고에 재고를 상시 보유하고 판매하는 방식인 '스톡세일'은 빠른 전자상거래 배송을 위해 꼭 필요하다. 수출첫걸음 기업이 처음으로 거래 물꼬를 터도 다음 수출로 이어지지 못하던 고질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코트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120개 국내기업에 소액을 지원해왔다. 늘어난 업계 수요를 감당하기가 버거워지면서 사업확대와 예산확보가 절실했다. 코트라는 긴급 예산을 투입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에 필요한 현지 스톡세일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쿼드카메라, 대화면... "중저가폰 뭐사지?"

대용량 배터리, 페이 등 지원  
20만원대서 50만원대 다양  
삼성, LG 잇따라 제품 출시  
애플, 샤오미도 시장 공략



(왼쪽부터)샤오미의 홍미노트 9S 글레이저 화이트 색상 모델, 삼성전자의 갤럭시 A31 프리즘 크리시 화이트 모델, /각사

코로나19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판매량 급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중저가 스마트폰 비중이 커지고 있다. 소비 심리 위축 속에서 카메라 성능, 대용량 배터리 등 꼭 필요한 기능을 넣고 가격을 낮춘 스마트폰에 소비자의 관심이 모이는 모습이다. 특히 스마트폰 기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쿼드(4개) 카메라가 기본으로 장착되는 모습이다.

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18%,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이동통신사의 5G 단말기 보조금 제한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평균판매가격(ASP)도 하락했다. 1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ASP는 약 55만8000원(464달러)이다. 이는 전년 동기 66만3000원(551달러)보다 약 10만 4000원(87달러) 낮아진 수준이다.

1분기 삼성전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갤럭시 A90 5G' 모델로 나타났다. 갤럭시 A90 5G의 평균 판매가격(ASP)은 54만5000원(453달러)가량이다. 갤럭시 노트나 S 시리즈 등의 플래그십 모델이 판매 1위에 오르지 못

다. LG Q61은 전면 1600만 화소 고화질 카메라와 후면 각각 4800만, 800만, 500만, 200만 화소의 표준, 초광각, 심도, 접사 카메라를 탑재했다. 화면은 6.5형의 대화면을 탑재했고 배터리 용량은 4000mAh다. LG전자는 최근 이 제품을 캐나다 시장에도 출시해 실속형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LG전자는 2분기에 유럽, 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에도 실속형 스마트폰 신제품을 순차 출시할 계획이다.

애플이 출시한 보급형 '아이폰 SE' 2세대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제품은 53만9000원의 가격에 아이폰11에 탑재된 것과 동일한 모바일 프로세서 'A13 바이오닉'을 탑재했다. 배터리 용량은 1820mAh이고 후면에 1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있다.

샤오미도 지난달 29일 20만원대의 스마트폰 '홍미노트 9S'를 출시하며 국내 시장 공략에 힘쓰고 있다. 홍미노트 9S는 공식 출시에 앞서 진행된 사전예약 판매에서 이를 만에 초도수량 2000대가 완판되는 성적을 기록했다. 홍미노트 9S는 64GB 모델이 26만4000원, 128GB 모델이 29만9200원이다. 6.67형 펀치홀 디스플레이와 5020mAh 배터리를 탑재했고, 후면에는 4개의 카메라가 장착됐다. 4800만 화소 메인카메라, 800만 화소 초광각카메라, 500만 화소 접사렌즈, 200만 화소 심도 센서다. 전면에는 1600만화소 카메라가 탑재됐다.

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상위 판매 모델에서도 중저가 스마트폰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2위인 '갤럭시 노트10' 시리즈를 제외하고 '갤럭시 A30', '갤럭시 A50'이 3,4위를 차지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중저가 스마트폰 신제품을 꾸준히 내놓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갤럭시 A31'과 '갤럭시 A51'을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갤럭시 A31은 쿼드 카메라와 5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 페이를 지원한다. 후면에 4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 8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500만 화소의 심도·접사 카메라를 탑재해 인물부터 풍경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누구나 전문가와 같은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전면 카메라는 2000만 화소다.

LG전자도 지난달 출고가 36만9600원의 'LG Q61'을 국내 시장에 출시했

/구세윤 기자 yuni2514@